

청소년의 예 리더십(禮 Leadership) 실태 및 프로그램 콘텐츠 요구도 분석

김 경 아(숙명여대 조교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인성교육’ 강화정책에 발맞추어 각 시·도 교육청은 교실 현장수업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주의(主知主義) 중심의 청소년 교육은 지식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이끌었지만 반면 바른 도의와 심성을 갖춘 인성 함양의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을 바른 인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육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가치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예절과 리더십의 통합된 개념인 ‘예 리더십’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인성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학제 간 접목을 통한 융복합 연구의 일환으로서, 동서양을 각각 대표하는 인성교육인 예절과 리더십의 통합된 교육 패러다임이며, 확대되고 있는 한국형 리더십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예 리더십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수행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와 공경으로 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역량’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국내외 청소년 예절과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DBpia, PQDT 등의 학술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 예절, 리더십, youth, manner, leadership 등의 주제어를 검색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외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 약200편을 탐색하였다. 둘째, 예절과 리더십의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예 리더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이 원하는 예 리더십 프로그램의 교육요구도는 3.90점이었으며, 시간관리, 목표설정, 사회관계, 갈등해결, 커뮤니케이션, 학업수행, 가족관계, 이미지관리, 시민행동의 하위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인(治人) 리더십 부문에 비해 수기(修己) 리더십 부문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의 역량증진을 위한 내용기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타인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에 앞서 개인적인 역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서번트 리더십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예절을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확고한 셀프 리더십을 갖추어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예 리더십이 청소년을 위한 훌륭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로 개발되어 한국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차세대 인재육성이라는 교육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실천적 연구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가정학에 토대를 두고 개발된 만큼,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축소되고 있는 가정 과목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 영역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3)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C00011).”